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권미혁 위원입니다.

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여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 한 이후 저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집담회 이후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후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경 30억원과 2017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총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송파 세모녀 3주기 -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가족의 현 주소와 새정부의 가족정책 과제 토론회’ 등 40여건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효과성 낮은 국가건강검진 실태 고발, 복지부 산하 9개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5% 이하 목표관리제 불이행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운용 및 의결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미성년 단독세대의 보험료 부과 등 반인권적 채납 강제를 제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등 39건의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성매매 발생 시 과건 업주 처벌을 명확화 하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강제노동 처벌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의약품도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3건의 법률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위대한 국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누구하나 뒤처짐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갓 첫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여부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 더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해보면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에 충실했습니다. NGO단체와 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주는 상을 모두 받는 등 당 안팎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구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 원내대변인으로 있을 때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질타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가 우리 헌정사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추위에 아랑곳 않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된 국정농단에 분노했고, 정경유착에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냐”는 외침이 매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와중에 먹고 사는 일은 쪼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가 벌어졌고, 관련자들은 재판받고 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또 한번 ‘절반의 혁명’으로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백년대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결국 국회의 입법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다는 칭찬과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남은 3년 간,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시간을 위해 뚝뚝 걸어갔다는 첫날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수민입니다.

제20대 국회 1차 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역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역설, 노력하지 않아도 배부른 자들은 더 배부르기만 한 역설, 셀 수 없는 역설들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오지 않기에, 앞으로도 기득권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역설들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도전과 노력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순리에 있다지만,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을 바로잡는 젊은 힘은 역설을 바꾸어나가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입법부가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은 국민께 더 봉사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06. 07.

국 회 의 원 김 수 민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의 첫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개원 후 첫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전례 없는 국정농단과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국민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교육과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분주하게 뛰었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오직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한 것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이라는 의정활동의 목표를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위임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과 뜻을 겸허히 이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오직 나라와 의회의 주인이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일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국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범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봄을 지나 나뭇가지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사계 중 두 번째 계절 여름처럼, 오직 국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무게와 깊이와 진심을 더해가는 두 번째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우선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 연맹 관계자분들과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주신 국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보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상식을 계기로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국회에 보내주신 천안시민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더 큰 천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더불어 재선 의원이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초선 의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른 정책으로 반영시키기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구제역 매몰지 규정 위반 사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더미 관리 부실 등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문제점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행사할때도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항만공사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일명 ‘행복 농어촌 5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야기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민의를 국회에서 반영하고자 청와대 특수활동비 15%를 삭감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한 마디로 자평하자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를 향해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최단기간 내 원구성 협상 타결’, ‘최순실 특검법 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개혁입법 추진’ 등을 위한 여야협상에 나설 때도 이 점을 항상 가슴에 담고 발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매우 영광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20대국회의 남은 3년 동안에도 ‘나라나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항상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상을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국회의원 박 정입니다.

먼저 그간의 노력을 귀중한 상을 통해 평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객관성이 보장된 지표로 좋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본회의와 상설상임위원회에 100% 출석했고,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초선의원 중 가장 많은 102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6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연구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제안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 앞서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냈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백서 발간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SK, CJ, 이랜드, 태광 등 대기업에게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 약속을 이끌어 냈고, 이후 이행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형마트와 전 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 제1당,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임기를 다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시민연맹의 헌정대상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박 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 주 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지역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의정활동 시작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초선의원임에도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게다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기쁩니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늘 성실한 감시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량화된 지표들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오랜 노력과 그 성과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이 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격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상의 영광과 함께 국민의 뜻을 대리해야 할 선출직 의원으로서 제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2016년 4월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며, 더 좋은 의정활동 성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집니다.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를 대리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권력기관 견제를 통해 공정한 법치국가를 만들고자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뜨거운 무더위로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치열했던 지난 대선이 후,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국회 안팎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게 이번 상은 국민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를 잘 헤아려 드렸는지, 올바른 의정활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를 국민이 주시는 회초리라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2개월이 안 지났지만, 벌써부터 수많은 이슈가 생기고, 변화를 알리는 방아쇠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위원회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이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계부채 문제와 재벌 개혁, 금융 개혁을 위해 국정감사와 토론회,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대 국회 남은 3년 동안에도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국회,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본의원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날카롭고 냉철한 눈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첫 해를 평가하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광주광역시민, 특히 서구 지역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2011년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 등 12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법률소비자연맹’ 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 점이 더욱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일자리 부족, 노인 빈곤, 사회 양극화, 전세난, 사교육비 부담 등 사면에서 조여 오는 민생고로 인해 1950~60년대 보릿고개 넘듯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선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인구 유출과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반복하고 있는 지방을 살리고, 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법 제개정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여야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의 김대인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7일

송 기 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국회의원, 광주 서구갑)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시상식을 준비해주신 김대인 법률연맹총본부 총재님과 의정활동평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현재 4선 국회의원으로써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언제나 초선 때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은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곳곳한 정치를 이어가라는 따뜻한 격려의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법률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윤영일 국회의원

(국민의당 해남, 완도, 진도)

안녕하십니까?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국회의원 윤영일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에서 주신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써 큰 역할을 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왕성한 입법활동을 바탕으로 45건의 법안 발의와 지역의 여러 현안 해결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이런 1년간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번 헌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진 거 같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헌정대상 수상이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26년 오랜 역사동안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300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평가하느라 고생하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모든 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개원한 20대 국회는 20년 만에 들어선 다당체제였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에 지친 국민들께서 변화된 국회의 모습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대 1·2 여야 정당들의 극심한 정쟁 속에 20대 국회 첫해가 흘러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과 헌정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책은 실종됐고, 민생은 외면됐습니다.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 가중시켜 드렸습니다.

실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으로서 몇 배의 노력, 국회의원 몇 사람 몫의 역할을 하고자 이를 악물고 정책과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상임위 정책 활동을 비롯한 부처 예산 및 결산 점검, 여러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꼼꼼히 챙기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저를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도 제 작은 노력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분한 상을 수상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따끔한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 그 후년, 매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 불가경)’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시갑: 장안구)

반갑습니다. 수원장안 국회의원 이찬열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돼 벅찬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를 이끌고 계신 김대인 총재님과 홍금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평가를 펼쳐 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의정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를 통해 공정한 법치 민주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사법부·행정부 등 국가 5부를 충실히 견제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여 부족한 점은 지탄하고, 또 잘한 일은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입법 등 의정활동이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적인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실책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알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수궁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어제 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초선 때의 마음가짐으로, 한결같은 뜻심으로 장안구민과 국민께서 보내 주신 믿음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

자유한국당 이채익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울산 남구 주민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상의 의미가 국민 여러분께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수상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수분지족 안빈낙도’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 연맹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에 감사드립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진구를 출신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 1차년도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2월, 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큰 영광을 누렸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정치 구현에 앞장서온 법률전문 26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 분석이 정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주어진 소임에 맞게 국회의 입법기능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이끌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2년째를 접어들면서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등을 발의해 지역 경제 기대효과를 불러왔고,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여야를 떠나 협치를 중점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의원, 각계 전문가와 호흡을 맞추며 의정활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늘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부산진구 지역분들께 작게나마 보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상의 의미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단없는 국가 발전을 위해 20대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기며 풍요롭고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6.7

국회의원 이헌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먼저 과분한 평가와 함께 명예로운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 소비자 연맹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대 총선준비를 시작으로 숨가쁜 한해를 지나왔습니다. 반쪽짜리 국정감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만들고자 애쓰며 건축물 내진설계, 민자도로 폐해, 제주신공항 민영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예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매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었고, 따뜻한 봄에는 장미대선을 치루기 위해 전국을 두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과 외면을 존경과 신뢰로 바꾸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본 수상을 계기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두 번째 해에 접어든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민생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해숙(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해숙입니다.

우선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을 준비해주신 김대인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국민들이 주신 20대 국회 첫 번째 성적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을,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양성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심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인등급제의 조속한 폐지, 아동복지수당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심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 추진 방안이 미흡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주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국민만 바라보고, 국회에 등원했던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특히 헌정대상은 국정감사나 국회의 여러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복잡한 지표를 수집하여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회원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가 깃들어 있는 상이기에 더욱 뜻 깊게 여기겠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도 19대 국회 4년의 종합 헌정대상을 수상한 영광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 수상으로 제 지역구인 양주 시민들께 지난 1년도 정성호가 적어도 밥값은 했다고 말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도 초선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여 여야가 바뀌었고,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국회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겸손하게 국민여러분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우리의 사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맡은 바 소임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변화를 이루어 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의 열성적 활동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상을 따뜻한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정대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이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계량화해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뜻 깊은 상이 아닐까 합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끈게 달려온 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힘차게 달리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알고 겸손한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알리는 일은 국회의원을 대표일꾼으로 세워주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많은 모니터단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민생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 해주시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분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헌정대상 수상에 만족하여 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적해있는 각종 현안이 많습니다. 이제 불통과 독선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을 통한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 헌정대상수상 경험을 발판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진정 국민의 삶을 위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항상 지켜봐주시고 질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주시는 이 상의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 첫 해를 맞는 제게 큰 격려와 응원으로 느껴집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그런 정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던 제게 이번에 수상하게 된 헌정대상은 지금까지의 제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고 정진하라는 국민의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회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현안과 정책을 균형 있게 다루어 더 폭 넓게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지금,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차별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정의가 강물처럼, 인권이 들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주승용입니다.

오늘 시상식을 주최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올해 26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전문시민단체로서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기본책무이며 권리인 공정성 감시와 법·정치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가결법안 수 ▲본회의 재석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평가기준을 토대로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 큰 상을 받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첫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이유는 아마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수가 국회의원 중 가장 많고, 본회의 출석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자,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법안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입법활동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해 힘써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 상 소 감 문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과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우리 국회가 본연에 역할인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 같은 국회의원의 본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은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매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들에 대한 격려라고 여기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여 시상하는 ‘헌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법치 민주국가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정평가로 인정받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를 거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쁘고 벅찬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입법 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내 쌀의 해외공여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이끌어내는 등 좋은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할 제게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과분하지만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입법은 물론 정부감시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6. 7.

국회의원 황 주 홍